

# 기계와 예술의 만남... 흥미로웠던 전시작

##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폐막

9개국 33명 27개 작품 선 보여  
 'TV 부처' '참여하는 기계' 눈길  
 개막공연 완성도·짧은 일정 아쉬움  
 7개국 8개 도시 정책포럼  
 광주 창의도시 네트워킹 성과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흥미로운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인기를 모았다.

전시장에 들어서니 하얀 석고 조각상을 그리고 있는 있는 사람(?)이 모두 넷이다. 30대 중반의 아빠는 학교 다닐 때 그림 좀 그려본 듯 실력이 뛰어나다. 한 쪽에서는 대머리살 뺨으로 보이는 딸 아이가 뽀뽀뽀 인물을 그리며 웃는다. 그리고, 옆에서 조각상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로봇들'이 보인다. 로봇의 그림과 석고상을 번갈아가며 보는데, 솜씨가 제법이다. 팀 보이드의 작품 '예술가의 길'이다. 자연스레 '창작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된다.

지난 1일~3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등에서 '인간×기계 시스템'을 주제로 열린 2017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예술과 인간, 첨단 기술의 관계를 떠올려 보게하는 흥미로운 행사였다. 또 이번 페스티벌이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간 네트워킹을 탄탄히 하는 계기가 된 점도 의미있었다.

9개국 33명 27개 작품이 선보인 이번 행사에서는 눈길을 끄는 작품이 많았다. 백남준의 'TV 부처'는 부처상이 폐쇄 회로 카메라에 실시간으로 찍힌 자신의 모습을 TV화면을 통해 보고 있는 설치작품으로 관객들은 화면 속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관심을 보였다.

또 생수병에 담은 물이 아이패드로 흘러내리면서 자동완성기능을 이용해 글을 써내려가는 아카히코 타니구치의 '생각이 많은 사물들', 5·18국립묘지, 우거진 풀숲 등 광주의 곳곳을 걷는 인물을 드

론으로 촬영한 최성욱 작가의 '수직적 행동', 페이스북으로 수집한 전 세계인들의 자화상을 그려낸 리아트 세갈의 '참여하는 기계' 등도 흥미로웠다.

전시작 중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도 있었지만 '해설'이 결여됐다면 훨씬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작도 많아 관객들을 위한 배려가 조금 아쉬웠다. 올해 큐레이토리얼 어시스턴트 제도를 도입, 이들이 직접 도슨트로 참여하며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작품설명이 부족해 있었다면 자유롭게 관람하는 이들에게 훨씬 도움이 됐을 듯하다.

개막 공연으로 기대를 모았던 '두 개의, 오케스트라'는 완성도 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와 타악 단체 '얼쑤' 등 지역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공연은 화려한 미디어 아트와 홀로그래프, 박진감 넘치는 타악 연주, 무용이 어우러지며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화려함과 색다름만으로 20여분이 넘는 시간을 끌고 가기에 다소 무리였다. 각각의 장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한채 나열에 그쳤으며 맥락없이 자주 등장한 무용 부분은 몰입감을 떨어뜨렸다. 오히려 5분 정도의 임팩트 있는 개막퍼포먼스로 작품을 구성했으면 훨씬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을 것이다.

올해로 6년째 맞는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전시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부터 메인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 주차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각 작품을

최적의 상태에서 감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아쉬웠다. 공간의 습도를 흡수해 드럼 세트 위로 물을 떨어뜨려 연주하는 비디오투어를 '랜덤 포지션' 작품은 추운 날씨 때문에 물줄기마저 얼어 작품 효과를 느낄 수 없었다. 미디어 338갤러리 전시작들을 훨씬 몰입감있게 관람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예산 등의 문제로 전시 기간이 3일에 그친 점은 아쉽다. 관객들의 반응이 이어지기에는 일정이 너무 짧아 미디어아트가 시민 문화 생활 속으로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7개국 8개 도시가 참여하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정책포럼' 등을 통해 네트워킹을 강화한 점은 큰 성과로 꼽힌다. 또 개막식에서 운장현 광주시장, 조티 오사그라하 유네스코 창의국장, 프랑스 리옹 등 6개국 7개 도시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간 미디어 작가 및 작품 교류 증진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동협력 네트워킹 선언문'을 채택해 의미를 더했다.

광주시는 2014년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됐고 최근에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부코디에너 도시로 발탁됐다. 특히 지난해 창의도시 플랫폼 건립 예산 290억원을 확보,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의 기반을 갖췄으며 건물이 완공되는 2020년부터는 안정된 공간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미디어아트 세계는 시민들 어떻게 초대할 것인지 늘 고민해야”

### 오스트리아 린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전시감독 크리스티나 마우어 아르스씨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오스트리아 린츠는 1979년 문을 연 융복합 콘텐츠 지원기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로 명성이 높다. 1983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뉴미디어 페스티벌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대표적 행사다.

“이번 광주 행사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아트와 기계, 미래 사회와 인간의 관계 등을 조명한 작품들을 선보인 흥미로운 전시였습니다.”

2017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 참여한 크리스티나 마우어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전시감독은 “미

디어 아트는 타 예술장르보다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시민들과 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3년전부터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 열리는 상설 전시와 페스티벌 전시 등 모든 전시를 총괄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을 미디어 아트의 세계에 어떻게 초대할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해요. 광주라는 도시가 미디어 아트를 어떻게 발

전시할까하는 문제와 함께요. 저희는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테크놀로지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현장과 이슈를 공유하는 거죠. 시민들과 연결고리가 될 많은 인포 가이드도 양성합니다. 그들은 시민들이 예술가, 작품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그녀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핵심 시설은 상설전시관과 다양한 참여공간이라고 소개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디오 랩, 브레인 랩, 가상현실 랩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공간은 언제나 오픈돼 있고 교육관계자가 로비에 상주, 오픈랩을 통해 미디어 아드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특별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김미은기자 mekim@

## ‘네 안에 내가’... 민영숙 작가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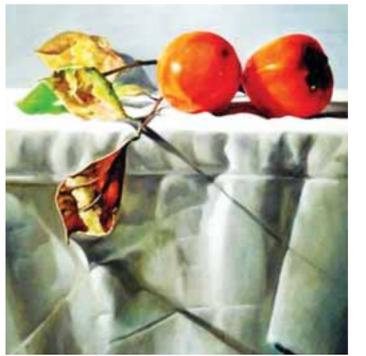
### 29일까지 LH휴광갤러리

민영숙 작가 초대전이 오는 29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역본부 1층 LH휴광갤러리에서 열린다.

‘네 안에 내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민씨는 정물, 풍경 등 다양한 작품 27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두터운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기존의 유화 작품 이외에 그리스 여행의 흔적을 담은 수채화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작가가 몰두하는 소재는 정물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삶과 생각들을 우리와 친숙한 정물에 이입해 비유하고 풀어내는 작업들이 흥미롭다. 전시작 ‘놓아주자’는 잘 익은 감과 말라가는 잎파리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여러여러한 일사귀에서 시처럼 모든 생명체는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익어갈 즈음 잎사귀는 낙엽이 된다. 그 모습에서 작가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본다.

그밖에 물가의 조약돌, 송두리채 떨어지는 동백꽃, 싱그러운 포도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놓아주자’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민씨는 전남대 미술대전 특선, 전남 청년작가상 등을 수상했으며 우수문화마을미술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토·일 휴무. 문의 062-360-31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극장 한국·대만·일본 영화 잇단 개봉

### ‘고령가 소년...’ 10월 1회 상영

12월 광주극장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오는 8일 개봉하는 영화 ‘초행’은 동거를 하고 있는 ‘지영’과 ‘수현’이 결혼을 생각할 시기가 찾아오면서 서로의 가족들을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오랜 연인이 겪는 상황과 감정을 보여주는 드라마다. ‘초행’을 연출한 김대한 감독은 제 7회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인 베스트 이미징 디렉터 상을 수상했으며, 청년비평가상 특별언급의 영광을 받았다.

26년 만에 4K 디지털 리마스터링으로 국내 최초 개봉한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은 대만 뉴웨이브를 이끈 에드워드 양 감독의 최고의 걸작으로 기억되는 작품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된 배우 장첸이 14살에 출연한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은 한 소년이 소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으로 대만 최초의 미성년자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10월 오후 2시40분 1회 상영.



‘초행’

14일 개봉하는 ‘세 번째 살인’은 승리밖에 모르는 변호사 ‘시게모리’가 자신을 해고한 공장 사장을 살해해 사형이 확실시되고 있는 ‘미스미’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그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 후쿠야마 마사하루, 야쿠쇼 코지, 히로세 슌스 등이 출연하여 영화의 무게감을 더해준다. 문의 광주극장 062-224-5858,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cinemawangju.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광주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포럼’

기초예술 분야는 문화예술의 근원 토양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지역 예술가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은 5일 오후 3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광주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퓨전악그룹 루트머지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는다. 발제자는 정경은 전남대 문

화전문대학원 교수로, 정 교수는 ‘광주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과 ‘예술인 100인보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포럼은 ‘정책포럼’ 토론자로 주홍(전시기획자), 박정운(극단토박이 대표), 김경운(시인), 최명진(문화기획자), 홍운진(루트머지 대표), 이세현(사진작가), 신준섭(데블스) 등이 참여해 현장 활동가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 **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어온

1등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UJANG HOTEL